

## 수원역 취약계층 결핵검진 및 무료 급식지원활동 실시

대한결핵협회 경인지회와 경기도청, 다시서기 지원센터, 그리고 광야의 119쉼터(함께하는 교회)가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6시부터 수원역 주변의 노숙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(59명) 및 무료급식지원 (230여 명)을 실시하였다. 이날 경인지회 직원 15명을 비롯하여 협력기관에서 약 20여 명이 참석해 의료봉사와 급식봉사를 지원했는데,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 노숙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.

협회는 결핵검진 및 급식 봉사 이외에도 새것은 아니지만 겨울맞이 대책이 시급한 이들에게 겨울을 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활용 의류 및 도서를 마련하여 전달했다.

우리나라에서 2011년 한 해 3만 9천여 명의 결핵 신환자가 발생하였고, 2,364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다. 특히 결핵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인 만큼 거리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. 이에 협회는 전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.†

